

광주 남구 사회복지협 '효사랑 부름이 센터' 간사들의 **孝** 실천

# 거동 불편 노인 아들·딸 되어 '행복의 영양분' 전해 드려요

“혼자 사는 노인네 집에 뭐 볼 게 있다고 누가 오겠소? 그래도 잊지 않고 한 번씩 와서 반찬도 주고 청소도 해주니깐 살겠.”

몇 년째 혼자서 생활하고 있는 박모(70·광주시 남구 양림동)할아버지는 매주 수요일만을 손꼽아 기다린다. 광주시 남구 보건·복지분야 민관협력기구인 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효사랑 부름이 센터(이하 부름이 센터)간사들이 매주 한차례 밀반찬을 들고 찾아오는 날이기 때문이다.

“맨밥”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식사를 거르기 일쑤였던 박 할아버지는 이들 덕분에 반찬 걱정만큼은 덜었다. 또 청소를 전혀 하지 못해 방안

곳에서 풍기던 매캐한 냄새도 반가운 손님인 이들이 오면 금방 사라진다.

먼지가 수북했던 방 안은 빗자루를 들고, 걸레를 빨아 청소를 하는 이들 덕분에 새집처럼 깨끗해진다.

간사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등급의 판정을 받은 남구 거주 독거노인 65명을 대상으로 밀반찬 제공뿐만 아니라 방문간호, 병원 및 목욕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부름이 센터에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해 자활 사업 참가자 등 모두 3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돌봐줄 가족 하나 없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 고령이나 당뇨, 고혈압,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으로 1~3등급의 판정을 받았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인들에게 '행복의 영양분'을 전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대학을 졸업한 뒤 이곳에서 활동중인 이유리(28) 간사는 “우리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떠올



지난 22일 남구지역 사회복지협의체 간사들이 남구시 남구 양림동의 한 독거 노인 가정 방문, 밀반찬을 전달한 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리던 힘들다는 생각을 할 수 없다”며 “오래된 어르신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 안타까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수개월째 빨지 못한 옷과 이불 등 빨래에서 풍기는 악취 때문에 곤혹스러운 적도 많았다고 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경우 빨래를 하지 못해 더러운 이불과 옷을 입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김모(67)씨는 “조금

라도 몸이 건강했을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이곳에 자원했다”며 “가진 건 없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좋고 그로 인해 내 마음도 풍요로워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에 따라 보건과 복지분야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마다 설치·운영 중인 기구로 모두 230곳이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종교칼럼



최광선

어느 날 부처님이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인근 부락에 사는 양구리마라가 “여보시오 당신 수도하는 사람이 지요. 잠깐 멈추시오”라고 말했다. 부처님은 “양구리마라야, 나는 처음부터 멈추어 있지않느냐. 너야말로 멈추어라” 그러자 “당신은 이상한 소리를 하시오. 당신은 걷고 있는데 멈추어 있다고 하고 나는 이렇게 서 있는데도 멈추어 서라고 하니 이것이 어찌된 말씀이요.”

## 멈추는 공부

이때 부처님은 “양구리마라야, 내가 실로 멈추어 있다는 것은 마음이 고요하고 평정하여 모든 색과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여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해칠 뜻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너는 조금도 너 자신에 대해서 자제함이 없고 마음은 요란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는 멈추어 서 있거니와 너는 멈추지 않는 것이 된다” 라고 하였다. 이 말에 감동한 양구리마라는 그 자리에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熾然作用(치연작용)이나 正體如如(정체여여)’라고 하였다. 즉 시비가 분분하고 구조가 복잡한 세상 경계 속에 살면서 육근을 치연하게 움직이되 마음의 정체는 고요하여 요란하지도 그르지도 않는다는 뜻이다.

원불교에서는 일 속에서 수양력을 쌓아가는 방법으로 ‘일을 당하여 멈추라’고 한다. 어떤 경계를 대하여 육근을 움직일 때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일단 동작을 멈추어 마음을 안정시킨 다음에 바른 생각으로 취사(실행)하라는 것이다.

사람이 일생에 10만 번만 멈추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큰 수양력이 쌓여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마음의 번민이나 고통을 이기는 힘을 얻는다고 한다. 하지만 일을 당하여 매사에 잠깐 멈추는 것은 반복되는 훈련이 없이는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

별새라는 새는 1분에 140번, 그러니까 날기 위해서 수만번 날개 짓을 반복한다고 한다. 화를 내는 마음도 멈추고 멈추어 반복하다 보면 빈 마음으로 전환된다.

요즘 ‘마음공부 스타(star)공식’이 유행이라고 한다. ‘멈추고(stop), 생각하고(think), 행동하고(action), 지금 실천하자(right now)!’는 말이다. 우리 마음은 카메라와 같아서 멈추고 흔들리지 않으면 모든 사물이 맑게 보인다. 멈추는 공부로 빈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에 정성이 있는 것은 그 공부가 자기의 앞날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아는 연고이며, 이 관계를 아는 사람은 공부하기에 비록 천만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를 능히 극복할 것이라고 하였다. 멈추는 공부로 저 허공과 같이 빈 마음이 되어 항상 청정함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원불교 원광대 광주한영법원 교무>

## '노인 수발' 복지부 장관상 받은 이화성 복지사 "어른들 상처 보듬는 게 우리가 할 일"



조그리고 자면서도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도 안 하는 자식 자랑을 하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면 속상할 때도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노인들의 건강은 아무리 잘 챙겨드려도 현상유지밖에 안 되며 이마저도 신경을 안 쓰면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기 때문에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지만 제가 사회복지사로 있는 한 이분들과의 약속을 지켜야죠. 버림받은 어르신들의 상처를 이루만겨주는 일이 제 일이에요.”

지난 20일 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민간간사로 4년째 활동 중인 이화성씨가 그간 펼쳐왔던 활동을 인정받아 보건복지가족부 주최로 열린 '제3회 사회복지 전국

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송원대학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도 맡고 있는 그는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제도에 놓인 노인들을 위해 '노인사례관리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각종 민관협력사업의 중계역할을 맡고 있다.

이씨는 “몇 년씩 봐온 어르신이 갑자기 돌아가실 때는 우울증이 걸릴 만큼 힘들다”며 “주은 데서

## 18년 다도수행 담은 산정일기

강진 백련사 여연스님 '참으로 즐거운 삶' 펴내

내달 8일부터 tea 고전 강의



해남 대흥사 일지암 차밭에서 차를 따고 있는 여연스님.

해남 대흥사 일지암에서 18년동안 다도 수행을 했던 여연스님이 '참으로 즐거운 삶'(풀그림)을 펴냈다. 대흥사 일지암은 '한국의 다성(茶聖)'으로 일컫는 초의(1786~1866) 선사가 일생을 마쳤던 곳.

책은 여연스님이 일지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며 느꼈던 단상을 담은 예세이집으로 일기 형식으로 된 53편의 글이 실려있다.

'일지암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등 사암, 세상살이에 대한 속내까지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이 큰스님의 품 속에서 생동감있는 언어로 재탄생했다.

2006년 광주일보 종교칼럼의 필진을 비롯해 차(茶)와 관련된 저술활동을 펼쳐온 여연 스님은 올해 강진의 백련사로 거처를 옮겨 다도 강의 등 차문화 부흥 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25일에는 초의차문화연구회와 함께 '백련사 가을 들차회'를 마련하며 오는 11월 8일부터는 강진 백련사 만경루에서 매일 둘째·넷째주 토요일 오후 3시 차 고전강의도 진행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여연스님은 이번 강의에서 초의선사가 엮었던 차생활 지침서 '다신전'과 차의 고전인 '동다송'에 대해 이야기한다.

차와 동백꽃으로 유명한 강진 백련사는 고려시대 후기 백련결사를 통해 민중들과 더불어 혼란스러운 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정선운동을 펼쳤던 유서깊은 고찰로 조선시대 혜장스님이 다산 정약용에게 차와 인연을 맺게 해준 곳으로 알려졌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개신교 '십일조'의 모든 것 밝힌다

개신교인들이 수입의 십분의 일을 헌금하는 '십일조'의 성경적 근거에서부터 역사, 운용 실태 등 십일조의 거의 모든 것을 망라하는 신학 심포지엄이 열린다.

24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높은뜻 숲의교회에서 바른교회아카데미 주최로 열리는 '헌금 실태조사 및 연구논문 발표' 심포지엄은 십일조를 비롯한 헌금과 관련된 성경 대목을 찾아 소개하고, 고대과 중세에 십일조를 어떻게 거두고 썼는지 살피고 한국사

회에서 그 의미를 새겨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호남신학대 김병모 교수가 '성서에 나타난 헌금에 대한 소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구약 성서 신명기를 인용, “삼 년에 한번씩 그해 거둔 십일조를는 나그네와 고아, 과부, 재사를 맡은 레위인이 배불리 먹는데 쓰게 했다”면서 “십일조는 하나님에 대한 제물, 성전 건축과 보수, 사역자 보수뿐만 아니라 십일조를 낸 사람이 이웃

호남신학대 김병모 교수 등 오늘 서울 명동서 심포지엄

과 화해하기 위해 벌이는 잔치, 고아와 과부 등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 쓰게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서원오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가 '교회재정과 헌금의 역사'를,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가 '한국사회에서 교회 헌금의 의미'를, 김승호 영남신학대 교수가 '한국교회와 헌금, 목회적 차원'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한다. /연합뉴스

## 교황 베네딕토 16세 전집 나온다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각종 저술들을 망라한 전집이 나온다.

로마 교황청과 독일의 헤르더 출판사는 베네딕토 16세가 대학교수 시절에서부터 교황으로 재직 중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난 50년 동안 저술했던 작품들의 전집을 발간하기 시작했다. 교황청과 AP 통신이 22일 전했다. 이 전집은 총 16권으로 되어 있으며, 이날 헤르더 출판사가 교황청에 증정한 제1권은 가톨릭 전례(典禮)에 관한 베네딕토 16세의 생각이 담겨 있다.

헤르더 출판사는 1년에 두 권씩 출판할 계획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현재 교황청 출판사는 헤르더 출판사와 협의해 이 전집의 이탈리아어판을 출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푸른호수, 푸른숲속  
**전원주택단지 선착순 본격분양 개시**

자연IN

최순 서성리 전원주택마을

052-653-9870

2009년에도 동부고시 합격신화는 계속됩니다.

**공무원시험 합격준비!!!**

공무원 시험 1위!!!

소방직 5년간 8,359명 채용!

1 동부고시학원

233-0509